제1호 '불교 햇빛발전소' 탄생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 고양 법문사에 건립

9월 9일 사찰 옥상서 준공식
1년에 5만7000㎾ 생산 기대
탄소 71t 절감·2호기 추진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고양 법문사 옥상에 설치된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 아래서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연에너지 생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불교계 최초 햇빛발전소가 고양 법문사에 건립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부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종범)은 9월 9일 고양 법문사에서 '제1호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조합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후 고양시 법문사에 제1호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발전사업 허가, 시공 등을 거쳐 이날 준공식을 했다.

발전소 건립은 65명의 조합원이 마련한 6500여만원의 출자금으로 이뤄졌다. 제1호 발전기는 법문사 건물 옥상에 설비용량 42.42㎾로 건립됐다. 1년에 약 5만7000㎾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71t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양이다.

준공식은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축사, 감사장 전달, 발전소 소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산업의 전망과 과제' 강의, 축하공연, 발전소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종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법문사 주지 일문, 삼천사 동출 스님과 김회철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송원근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1호 발전기 건립을 축하했다.

조합 이사장 종범 스님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0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11월에 설립등기를 낼 때는 13명의 조합원, 출자금 21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어느덧 65명의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아 부채 없이 제1호 발전소를 건립하게 됐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교계 최초로 사찰에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다는 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미 개발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햇빛발전소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공익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조합들 중에는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데 우리는 벌써 1호기를 준공하고 2호기 부지까지 마련했다"며 "2호기, 3호기로 거듭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부처님 평등과 무소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원불교에 기반을 둔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송원근 이사장도 "불교계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며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이 빈 곳을 채워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펼쳐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제1호 햇빛발전소를 위해 흔쾌히 법문사 옥상을 내어준 주지 일문 스님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다. 일문 스님은 "1기 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소가 세워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가 설치된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커팅식을 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은 안산 화림선원 주차장을 이용해 45.45㎾ 용량의 제2호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9월 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교방송 사장 선임 보류…안건 상정 안해

9월 13일 제120차 이사회
"종단과 숙의 필요" 이유로
천태종 시용 스님 이사 선임



BBS불교방송(이하 불교방송) 신임 사장 선출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불교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종단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덕문)는 9월 13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120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상임이사 현민 스님을 비롯해 주경 · 수불 · 월우 · 성행 · 향성 스님, 도진 · 능원 · 우인 정사, 이한구 · 노부호 · 정주교 · 박기동 · 엄상호 이사 등 재적 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여해 성원됐다.

회의에서는 △임원 선임의 건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 △2023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올라왔으나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 안건 상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사 주경 스님은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대해 종단 안팎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해 혹시 부결되면 후보자들에게도 실례다. 좀 더 논의를 거치고 숙의한 뒤 안건을 상정했으면 한다"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주경 스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성행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추천한 사장 후보들에 대한 종단적 교분이 없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 · 정사 이사들의 동의로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는 △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만 상정됐다.

신규 임원으로는 지난 8월 천태종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시용 스님이 이사로 선임됐다. 시용 스님은 1984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천태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급 중대사(重大師) 법계를 품수했다.

또한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문석 감사의 재임을 의결했으며, 상반기 감사 보고를 받고 회향했다.

신중일 기자

"젊은 세대 맞춘 친숙한 불교 만들어야"

동국대 건학위, 9월 12일
건학이념구현 교수 간담회
불교학부 등 5개 학과 참여
대학생전법 위한 의견 나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9월 1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이 대학생 전법 등 청년불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9월 1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는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미술전공, 한국음악과 등 총 5개 학과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캠퍼스 내 다양한 학과 중 불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과 교수진들이 모여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 학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상월결사가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아홉스님의 결사를 시작으로 올해 43일간 1167㎞의 부처님 성지순례를 마쳤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법과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건학이념과 관련된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건학이념 구현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불교중흥과 동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학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 맞춰 불교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친숙한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돈관 스님은 "건학이념 구현 관련학과 교수님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현실화될 수 있는 의견들을 잘 다듬어 최근 한국불교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 '대학생 전법'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천년을 세우다' 동참

지원장 혜도 스님 · 신도회 1000만원 기탁

진우 스님 "따뜻한 마음에 큰 힘"
혜도 스님 "원력 동참 기회 삼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 신도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정성을 보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현대불교신문사 사장)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이동진 부산지원 신도회장 및 신도회 임원 등이 함께했다.

혜도 스님은 "법당 내 모금함을 통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세우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불교가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불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가 번성했던 통일신라 때에는 나라와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했었다"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 다시금 불교가 융성하고 나라에도 평온이 꽃피울 수 있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

2023 제1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자연의 맛과 나눔의 마음을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현대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하여 자연과 생태, 우주의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찰음식의 이익을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축제의 마당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10월 6일(금요일) ~ 10월 7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

시 간	10월 6일(금)	10월 7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금비라 졸업식 09:00~09:30 대적광전
09:30~10:00		차명상 09:30~10:30 부도탑 앞
10:00~10:30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10:30~11:00		육법공양 10:30~11:00 불탑 앞
11:00~11:30	차명상 11:00~12:00 도서관 2층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1:00~12:00 야외무대
11:30~12:00		탁발시연 12:00~12:30 도량 내
12:00~12:30	육법공양 12:00~12:30 금탑 앞	
12:30~13:00	사찰음식 실습강좌 법송스님(더덕대추전, 우엉찹쌀전) 12:40~13:30 야외무대	사찰음식 실습강좌 선재스님(배추김치, 좁쌀알타리) 12:40~13:30 야외무대
13:00~13:30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조선마술패, 우담화합창단 리허설 시상식 준비 13:30~14:20 야외무대
14:00~14:30		
14:30~15:00	무아(無我)차회 (헌다와 나눔 찻자리) 14:30~15:30 금탑 앞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신도회 공덕상 시상식 2부 : 조선마술패 공연 우담화합창단 공연 14:30~16:30 야외무대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